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

최 은 영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I. 서론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최전선(frontline)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이다.

이들 필수노동자 대부분은 저숙련·저임금 직종의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근로하고 있다. 이는 ‘필수’노동이 사회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이유를 4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필수 직종 상당수는 특별한 교육이나 기술이 필요 없어 진입이 쉽고, 노동공급이 많다. 둘째, 고임금 직종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지 않다. 셋째, 필수노동의 효용성과 무관하게 임금이 결정된다. 넷째,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매우 약하다(홍성훈,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저평가된 필수노동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주목하여, 필수노동자 직군별 임금수준과 임금불평등에 기여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지니계수(Gini Index)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임금불평등 추이를 관찰하고, 필수노동자의 임금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이후 소득분위별 임금증감율을 계산하여, 직군별 필수노동자 내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각 직군별 필수노동자 임금불평등 요인별 기여도를

샤플리값(Shapley Value) 분해¹⁾로 산출한다. 이를 통해 실제 우리나라 필수노동자의 임금수준을 확인하고, 저평가된 필수노동자의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 변화를 연령별, 성별, 학력별로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와 연구대상을 설명하고, 연구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필수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시계열 그래프로 살펴보고, 종사상 지위별, 소득분위별 임금과 근로시간 격차를 분석한다. 제Ⅴ장에서는 필수노동자 임금결정요인과 임금불평등요인을 분해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임금불평등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분석한다.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코로나19와 임금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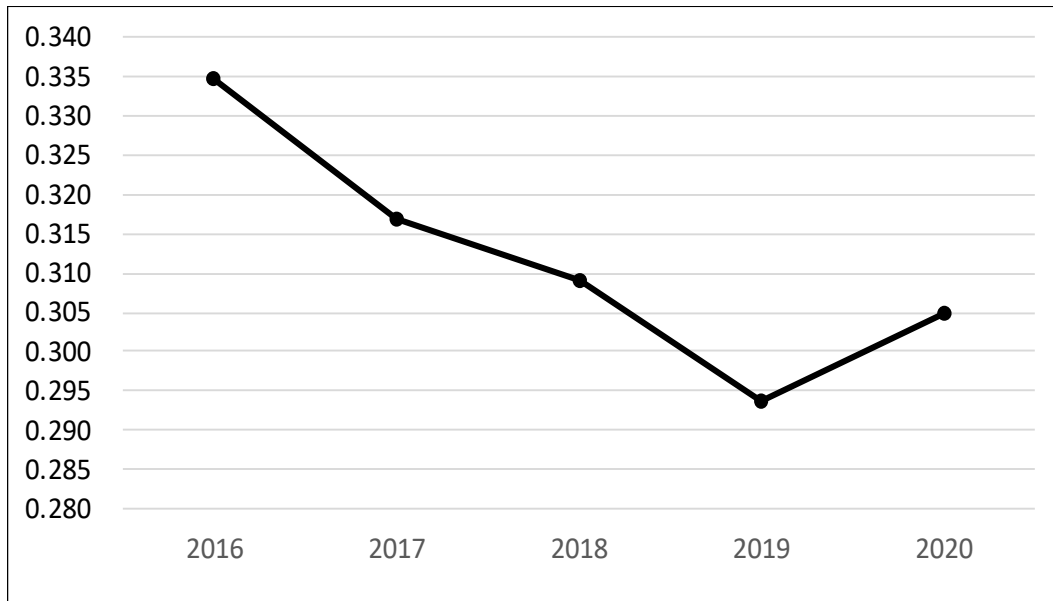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의 모습은 바뀌었고,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폐쇄조치로 고용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가 확산되었고, 자동화와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임금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김혜진, 2020).²⁾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금불평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이용하여 확인해보았다. [그림 1]은 코로나19 이후 임금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6~2020년 지역별

-
- 1) 샤플리값(shapley, 1953)은 한계비용에 근거한 한계적 기여(marginal contribution)를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고려하여 배분하는 균형배분규칙이다. 원래 협조적 게임의 균형개념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불평등의 요인별 한계 기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2) 김혜진(2020),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0-13

고용조사' 상반기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임금의 연도별 지니계수 (Gini index)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6년 이후 임금 지니계수는 떨어졌고, 2018년 0.309, 2019년 0.294로 계속 하락하다가 2020년 0.305로 반등했다.³⁾ 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임금불평등 수준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2016-2020 임금불평등(gini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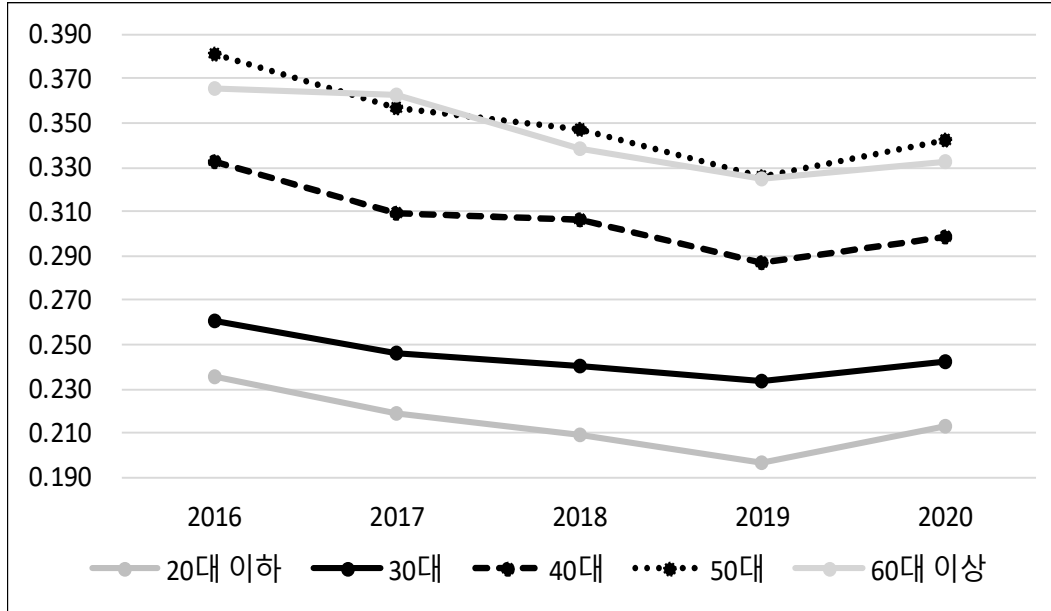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6-2020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연령별 임금불평등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임금불평등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 40대, 30대, 20대 이하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불평등도도 높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전 연령대에서 임금불평등이 높아졌다. 임금불평등이 가장 높아진 연령대는 20대 이하이며, 그 다음으로 50대와 40대 순이다. 그리고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임금불평등은 세대 내에서도 높게 나타나, 세대 간 재분배뿐만 아니라, 세대 내 재분배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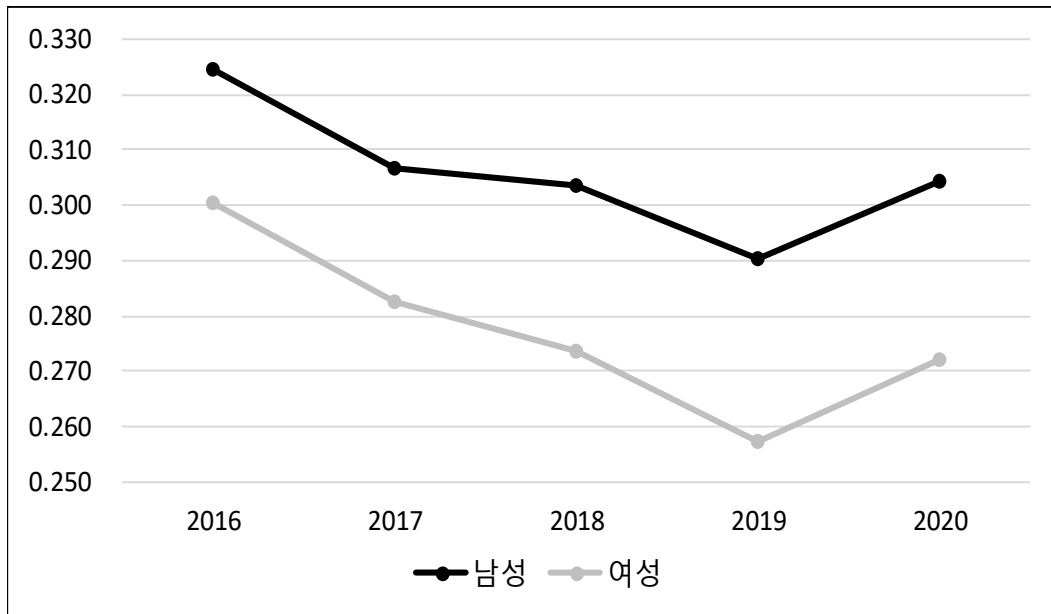
3) 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투입했고, 지니계수는 소득원천별 Rao's(1969) 분해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그림 2] 2016-2020 연령별 임금불평등(gini index)



자료: 통계청, 2016-2020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3] 2016-2020 성별 임금불평등(gini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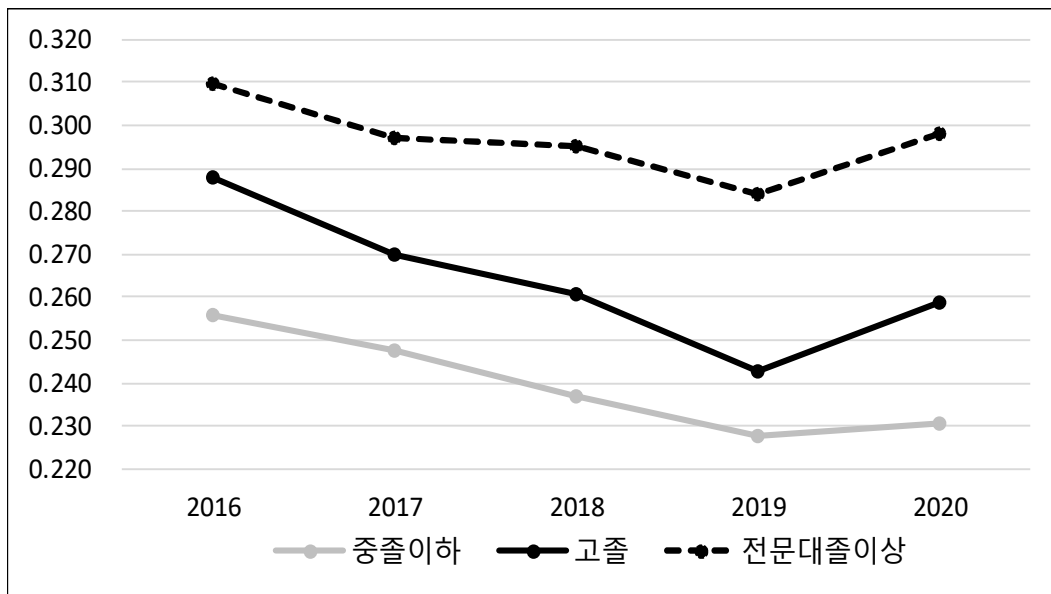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6-2020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성별 임금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임금불평등은 2016년 0.324, 2017년 0.307, 2018년 0.304, 2019년 0.290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 0.304로 증가했다. 여성의 임금불평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2019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20년에 0.272로 높아졌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이, 코로나19 이후 남녀 모두에서 임금불평등은 악화되었다.

한편, [그림 3]의 성별 임금불평등에서 남성의 임금불평등은 여성의 임금 불평등 보다 더 높다. 지금까지 임금격차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성별 임금격차에 주목했다. 하지만, 여성보다 임금불평등이 높은 우리나라 남성 간의 구조적인 문제(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도 의미 있어 보인다. 또한, 여성의 저평가된 임금구조로 인해 임금불평등이 낮은 것은 아닌지, 여성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4] 2016-2020 학력별 임금불평등(gini index)



자료: 통계청, 2016-2020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학력별 임금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임금불평등은 2016년 0.310, 2017년 0.297, 2018년 0.295, 2019년 0.284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 0.298로 증가했다. 고졸과 중졸 이하의 임금불평등도 마찬가지로

지로 2019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20년에 0.259, 0.231로 높아졌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이, 코로나19 이후로 임금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의 임금불평등이 중졸이하보다 크게 증가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불평등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손실도 크다(이병희 외, 2018).⁴⁾

Ⅲ.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대상인 필수노동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개인 자료에서 직업 소분류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국내자료로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이후 임금 및 근로시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최신자료가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자료를 사용하였다.⁵⁾

필수노동자 분석대상 직군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의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1>과 같이 필수노동자 직군은 보건/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운송/배달 서비스, 청소/환경미화로 구분했다.

연구방법은 필수노동자 직군별 시계열 추이 분석과 임금증감율 계산, 임금불평등 요인 분해를 사용하였다. 필수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수준과 비교하여 그래프로 제시하고, 코로나19 이전/이후 임금 증감율을 소득분위별로 계산하여 직종 간, 직종 내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직군별 필수노동자 임금불평등 요인(연령, 성별, 교육, 결혼, 근속년수, 상용직, 근로시간)별 기여도를 회귀분석

4) 이병희·정성미·김현경·이시균(2018), 노동시장제도와 임금불평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보고서 2018-01

5)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현재 2019년도 데이터가 최신이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임금 및 소득 자료는 이전 년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시차(time lag)가 있다.

기반의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으로 산출하였다(이우진·최은영, 2020).⁶⁾

〈표 1〉 필수노동자 직업군

직업군	code	필수노동자
보건/사회복지	246 247	응급 구조사, 위생사, 의무 기록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돌봄 서비스	421 951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및 교사 보조 서비스 종사원,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운송/배달 서비스	873 922	택시운전원, 버스운전원,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대리 포함), 택배원, 음식 배달원 등
청소/환경미화	941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자료: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

IV. 필수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1. 임금 추이

2016-2020년 필수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추이와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추이를 4개 직군별로 살펴보았다(그림 5).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2016년 13,663원, 2017년 13,661원, 2018년 14,683원, 2019년 15,539원, 2020년 17,997원으로 높아지고 있고, 2019년도 대비 2020년에는 15.82%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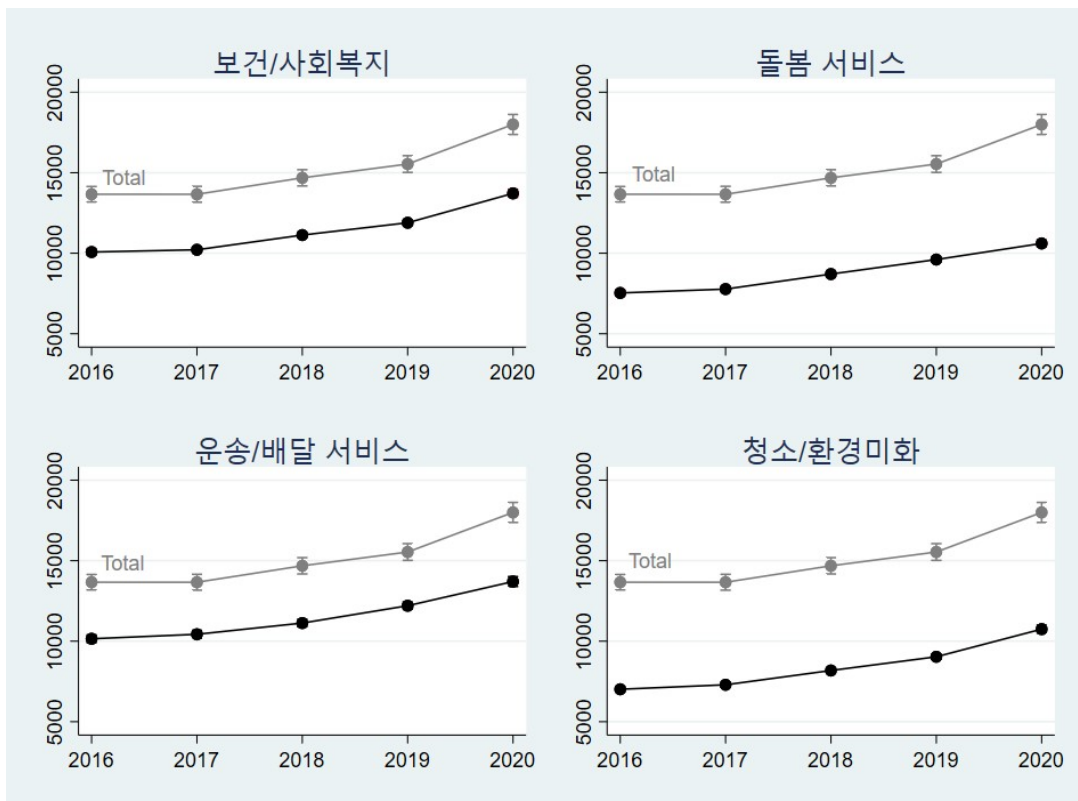
보건/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운송/배달 서비스, 청소/환경미화 4개 직군 필수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 노동자 시간당 임금의 59%~76%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 보다 시급 5,900원~7,400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청소/환경

6) 임금불평등 지수는 Gini계수로 측정하고, 선형 임금함수를 추정한 후, 이 추정 값들에 ‘평균 샤플리값 분해’를 적용하였다. 본 분석방법은 이우진·최은영(2020)에 자세히 나와 있다.

미화원의 2020년 시간당 임금은 각각 10,609원, 10,749원인데, 이는 최저임금(8,590원)보다 약 2천원정도 높은 금액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의 임금과 전체 노동자의 임금 간 격차는 19% 더 커졌다. 필수노동자 직군별로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는 2019년에 비해 17% 더 커졌고, 돌봄 서비스는 25%, 운송/배달 서비스는 29%, 청소/환경미화는 11% 더 커졌다.

[그림 5] 2016-2020 필수노동자 시간당 임금(vs. 전체 노동자 시간당 임금)



자료: 통계청, 2016-2020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주: 1) X축 년도, Y축 시간당 임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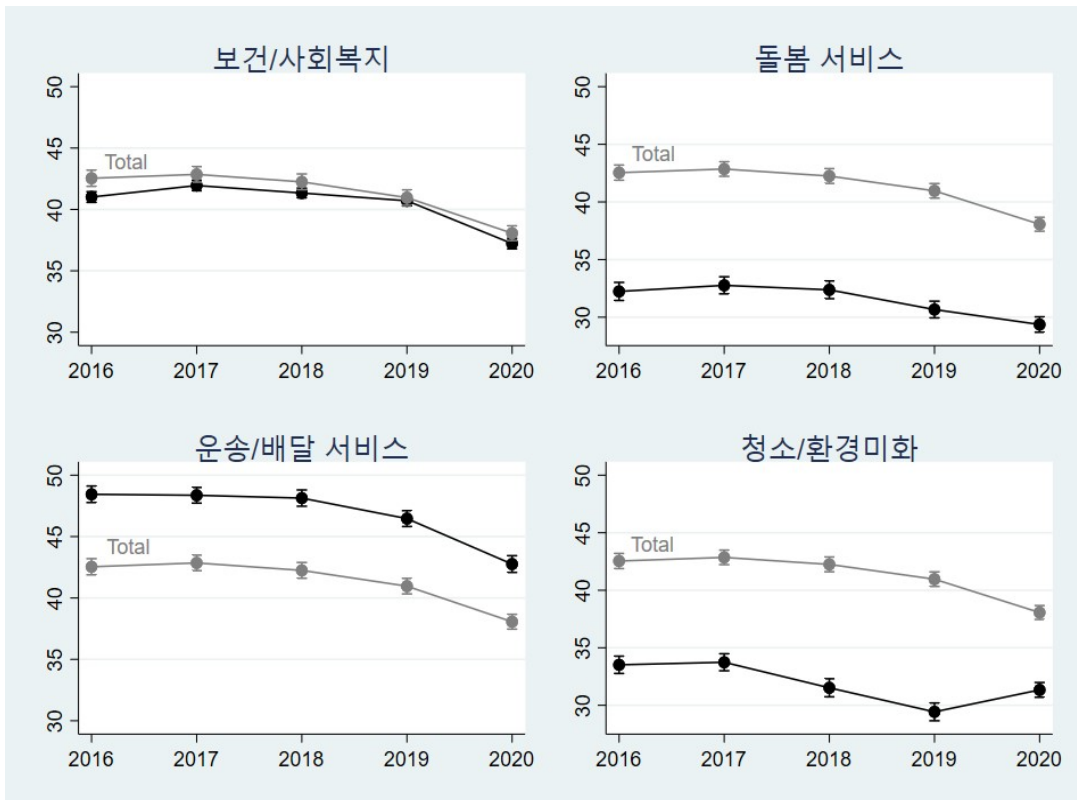
2) 시간당임금 평균은 점(dot)으로, 표준편차는 기둥(column)으로 표기한다. 회색선(Total)은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2. 근로시간 추이

2016-2020년 필수노동자의 근로시간 추이와 전체 노동자의 근로시간 추이

를 4개 직군별로 살펴보았다(그림 6).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근로시간 평균은 2016년 42.5시간, 2017년 42.9시간, 2018년 42.2시간, 2019년 41.0시간, 2020년 38.1시간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9년도 대비 2020년에는 7.08% 감소했다.

[그림 6] 2016-2020 필수노동자 1주 근로시간(vs. 전체 노동자 1주 근로시간)



자료: 통계청, 2016-2020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주: 1) X축 년도, Y축 1주(week) 근로시간

2) 1주 근로시간 평균은 점(dot)으로, 표준편차는 기둥(column)으로 표기한다. 회색선(Total)은 전체 노동자의 1주 근로시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필수노동자 중 보건/사회복지는 전체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돌봄 서비스와 청소/환경미화의 근로시간은 전체 노동자의 72%~82% 수준으로 주 35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청소/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 평균은 2019년 30.2시간에서 2020년 32.0시간으로 5.89%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활용 등의 쓰레기 증가로 청소/환경미화

일의 근로시간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운송/배달 서비스의 근로시간 평균은 2016년 48.4시간, 2017년 48.4시간, 2018년 48.1시간, 2019년 46.5시간, 2020년 42.8시간으로 전체 노동자의 근로시간 평균에 비해 11% 정도 더 길다. 그리고 운송/배달 서비스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만약, 비임금근로자인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배달 라이더 등)가 포함되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⁷⁾

3. 종사상 지위별 임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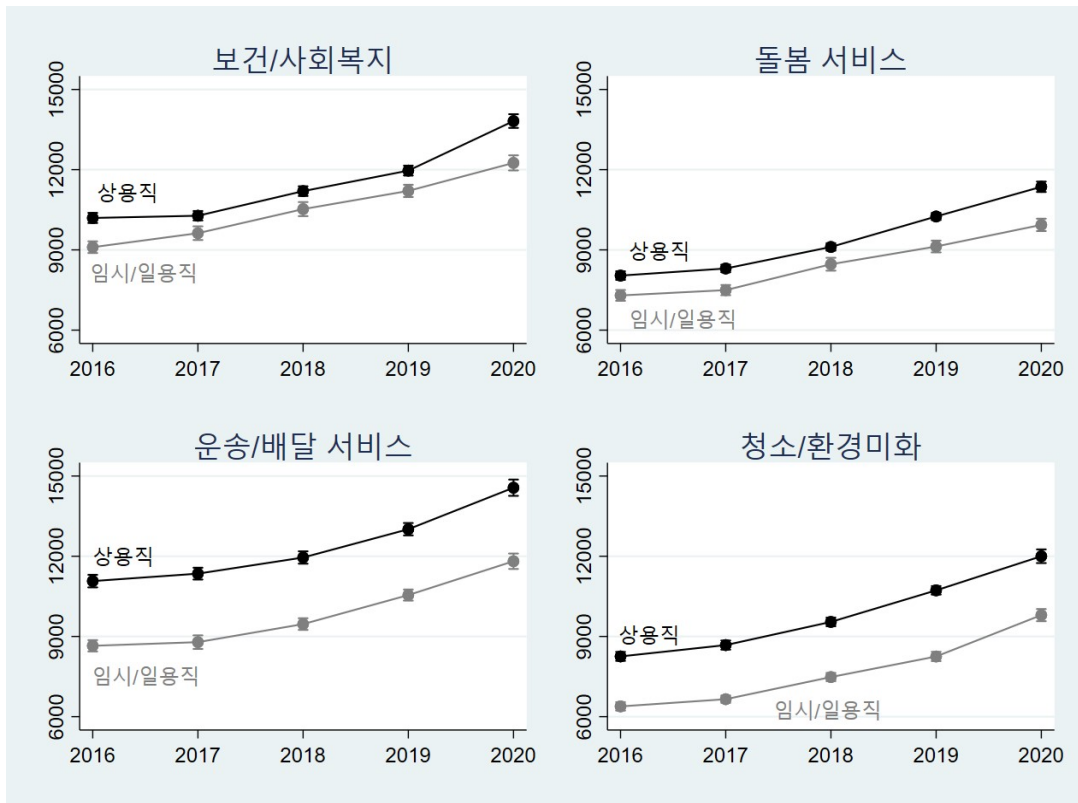
필수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시간당 임금 추이를 4개 직군별로 제시하였다(그림 7).

2020년 기준 보건/사회복지 임시/일용직의 시간당 임금은 상용직의 89% 수준으로, 2019년 이후 임금 격차가 커졌다. 돌봄 서비스는 2018년 이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가 커졌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8년 647원, 2019년 1,123원, 2020년 1,425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19년에는 74%, 2020년에는 27% 커졌다.

그리고 운송/배달 서비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매우 크다. 상용직은 2018년 11,952원, 2019년 13,011원, 2020년 14,563원이며, 임시/일용직은 2018년 9,463원, 2019년 10,548원, 2020년 11,814원으로 상용직의 80% 수준이다. 청소/환경미화는 2019년 이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감소했지만, 2020년 임시/일용직의 시간당 임금은 9,799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냈다.

7)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역별 고용조사'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을 계산하였다. 운송/배달 서비스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비임금근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송/배달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7] 2016-2020 필수노동자 종사상 지위별 임금 격차



자료: 통계청, 2016-2020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주: 1) X축 년도, Y축 시간당 임금(원)

2) 시간당임금 평균은 점(dot)으로, 표준편차는 기둥(column)으로 표기한다. 회색선(Total)은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4.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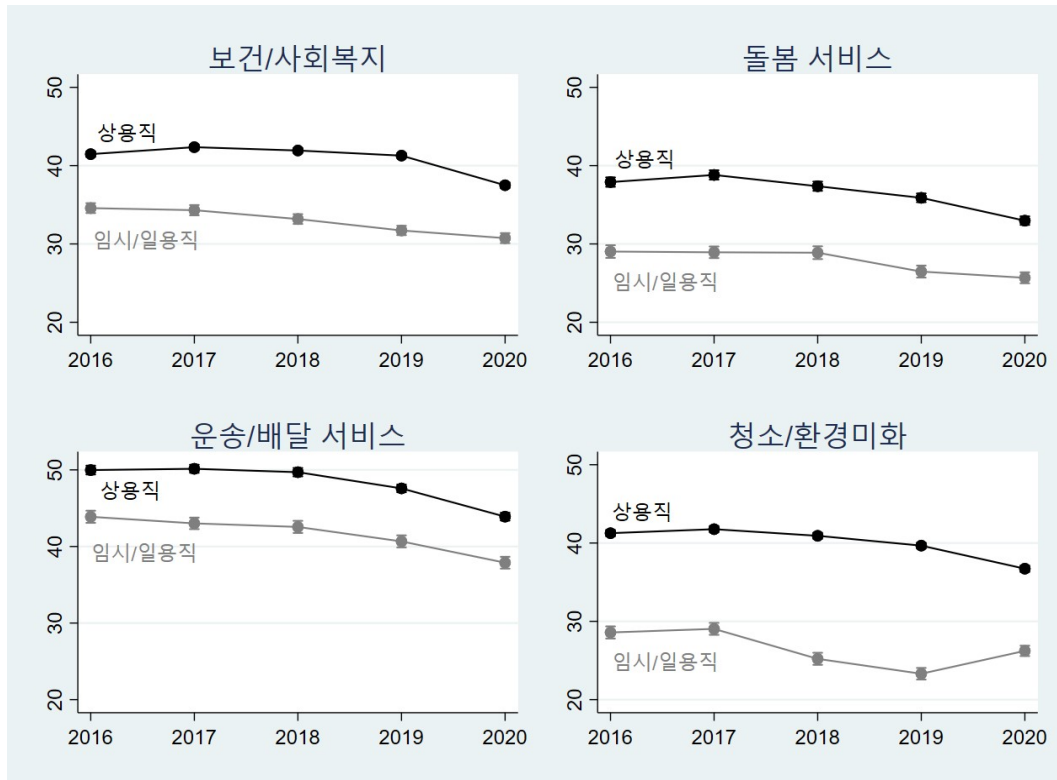
2016-2020년 필수노동자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 격차를 4개 직군별로 살펴보았다(그림 8). 필수노동자 4개 직군 모두에서 상용직의 근로시간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 청소/환경미화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근로시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보건/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운송/배달 서비스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 감소율은 상용직 보다 작았다.

보건/사회복지는 2019년 이후 근로시간 격차가 감소했고, 2020년에는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이 상용직의 82% 수준으로 주 31시간이다. 돌봄 서비스도 2019년 이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감소했다. 상용직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8년 37시간, 2019년 36시간, 2020년 33시간이며, 임시/

일용직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8년 29시간, 2019년 26시간, 2020년 26시간으로 근로시간 격차는 전년도에 비해 2019년에는 11% 커졌고, 2020년에는 23% 줄었다.

운송/배달 서비스 상용직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8년 50시간, 2019년 48시간, 2020년 44시간이며, 임시/일용직은 2018년 43시간, 2019년 41시간, 2020년 38시간으로 모두 감소 추세에 있다.⁸⁾ 청소/환경미화는 2019년 이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은 13% 증가했다. 청소/환경미화 상용직은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었다.

[그림 8] 2016-2020 필수노동자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 격차



자료: 통계청, 2016-2020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주: 1) X축 년도, Y축 시간당임금(원)

2) 1주 근로시간 평균은 점(dot)으로, 표준편차는 기둥(column)으로 표기한다. 회색선(Total)은 전체 노동자의 1주 근로시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8) 운송/배달 서비스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비임금근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송/배달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5. 코로나19 이전/이후 소득분위별 필수노동자의 임금 격차

코로나19 이전/이후 필수노동자 임금 증감율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필수노동자 직종 내, 직종 간 임금변화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와 필수노동자의 소득분위별 임금 증감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분위는 월평균 5분위 소득 기준이며, 코로나19 이전/이후를 비교하기 위해 2019년도와 2020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당 임금 증감율을 계산했다.

먼저, 2019년과 2020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시간당 임금 증감율은 1분위 11.9%, 2분위 11.8%, 3분위 12.8%, 4분위 16.4%, 5분위 17.6%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시간당 임금 증감율도 높다. 임금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중위(3분위) 대비 증감율을 계산하면,⁹⁾ 전년도 대비 2020년 1분위 증감율은 -0.73%, 2020년 5분위 증감율은 4.27%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저소득층에서만 줄었고,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의 임금¹⁰⁾ 증감율을 살펴보면, 1분위 12.6%, 2분위 11.1%, 3분위 17.0%, 4분위 26.6%, 5분위 5.5%로 4분위 증가율이 높았고, 최상위소득계층인 5분위 증가율은 높지 않았다. 중위 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2020년 1분위 증감율은 -3.57%, 2020년 5분위 증감율은 -9.02%로 2019년도 보다 모두 감소했다. 특히, 5분위에서 큰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의 고소득층에서 타격이 더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필수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전년도 임금 증감율을 비교하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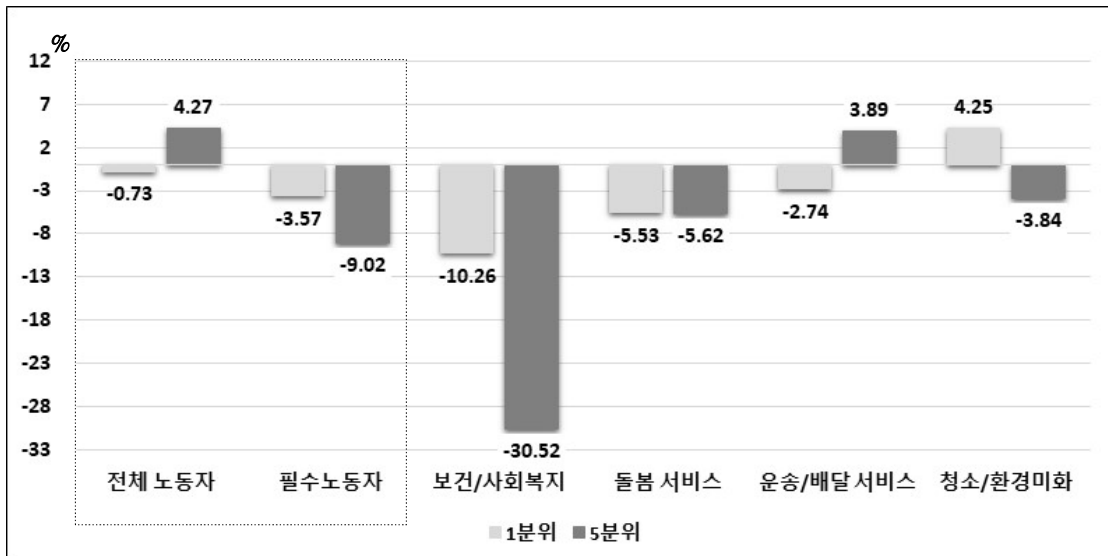
9) 중위(3분위)대비 증감율은 소득분위별 시간당임금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했다.

$$\frac{\{(2020년\ 1분위\ 시간당임금\ 평균)/(2020년\ 3분위\ 시간당임금\ 평균)-(2019년\ 1분위\ 시간당임금\ 평균)/(2019년\ 3분위\ 시간당임금\ 평균)\}}{(2019년\ 1분위\ 시간당임금\ 평균)/(2019년\ 3분위\ 시간당임금\ 평균)} * 100$$

10) 필수노동자 임금은 본 연구에서 규정한 필수노동자 직업군(보건/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운송/배달 서비스, 청소/환경미화)의 시간당 임금 평균값을 적용한다.

노동자 1분위 감소율은 더 낮았고, 5분위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 증가와는 반대로 매우 감소하였다. 따라서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서도 임금이 감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2020년 필수노동자 시간당임금 증감율 (2019년 대비 %)



자료: 통계청, 2019-2020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보건/사회복지 임금 증감율은 1분위 16.4%, 2분위 17.6%, 3분위 29.7%, 4분위 69.2%, 5분위 -9.9%로 4분위 증가율이 높았고, 최상위소득계층인 5분위는 감소했다. 중위 대비 1분위 증감율은 -10.3%, 중위 대비 5분위 증감율은 -30.5%로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임금은 모두 줄었고, 특히, 고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임금이 감소했다.

돌봄 서비스 임금 증감율은 1분위 7.0%, 2분위 7.9%, 3분위 13.2%, 4분위 12.2%, 5분위 6.9%로 3분위와 4분위 증가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1분위와 5분위 증가율은 낮았다. 중위 대비 1분위 증감율은 -5.5%, 중위 대비 5분위 증감율은 -5.6%로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임금은 모두 줄었다.

운송/배달 서비스 임금 증감율은 1분위 6.4%, 2분위 11.8%, 3분위 9.4%, 4분위 9.9%, 5분위 13.6%로 5분위 증가율이 높았고, 최하위소득계층인 1분

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위 대비 1분위 증감율은 -2.7%, 중위 대비 5분위 증감율은 3.9%로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임금은 줄었고, 고소득층의 임금은 늘었다.

청소/환경미화 임금 증감율은 1분위 20.8%, 2분위 7.0%, 3분위 15.8%, 4분위 15.1%, 5분위 11.4%로 1분위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분위, 4분위, 5분위 순이다. 중위 대비 1분위 증감율은 4.2%, 중위 대비 5분위 증감율은 -3.8%로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임금은 늘었고, 고소득층의 임금은 감소했다.

〈표 2〉 2020년 필수노동자 시간당임금 증감율 (2019년 대비 %)

직업군	2019/2020 시간당임금 증감율(%)					중위(3분위) 대비 증감율(%) ¹¹⁾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5분위
보건/사회복지	16.4	17.6	29.7	69.2	-9.9	-10.3	-30.5
돌봄 서비스	7.0	7.9	13.2	12.2	6.9	-5.5	-5.6
운송/배달 서비스	6.4	11.8	9.4	9.9	13.6	-2.7	3.9
청소/환경미화	20.8	7.0	15.8	15.1	11.4	4.2	-3.8
평균	12.6	11.1	17.0	26.6	5.5	-3.6	-9.0

자료: 통계청, 2019-2020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6. 코로나19 이전/이후 소득분위별 필수노동자의 근로시간 격차

코로나19 이전/이후 필수노동자 근로시간 증감율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고, 전체 노동자와 필수노동자의 소득분위별 근로시간 증감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분위는 월평균 5분위 소득 기준이며, 코로나19 이전/이후를 비교하기 위해 2019년도와 2020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시간 증감율을 계산했다.

11) 중위(3분위)대비 증감율은 소득분위별 시간당임금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했다.

$$\frac{(2020\text{년 } 1\text{분위 시간당임금 평균}) / (2020\text{년 } 3\text{분위 시간당임금 평균}) - (2019\text{년 } 1\text{분위 시간당임금 평균}) / (2019\text{년 } 3\text{분위 시간당임금 평균})}{(2019\text{년 } 1\text{분위 시간당임금 평균}) / (2019\text{년 } 3\text{분위 시간당임금 평균})} * 100$$

먼저,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모두 감소했다. 1분위 -1.6%, 2분위 -8.2%, 3분위 -8.7%, 4분위 -8.9%, 5분위 -10.2%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근로시간 감소율이 높았다. 근로시간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중위(3분위) 대비 증감율을 계산하면,¹²⁾ 전년도에 비해 2020년 1분위 증감율은 7.73%, 2020년 5분위 증감율은 -1.61%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저소득층에서 증가했고,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의 근로시간¹³⁾ 증감율을 살펴보면, 1분위 -2.1%, 2분위 0.7%, 3분위 -5.3%, 4분위 -7.2%, 5분위 -8.4%로 5분위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분위, 3분위 순이다. 2020년 중위 대비 1분위 증감율은 3.50%, 5분위 증감율은 -3.11%로 2019년도 보다 1분위는 증가했고, 5분위는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 필수노동자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어려운 근로상황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와 필수노동자의 근로시간 증감변화를 비교해보면, 1분위 전체 노동자 7.73%, 1분위 필수노동자 3.50%, 5분위 전체 노동자 -1.61%, 5분위 필수노동자 -3.11%로 1분위와 5분위 모두에서 필수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보다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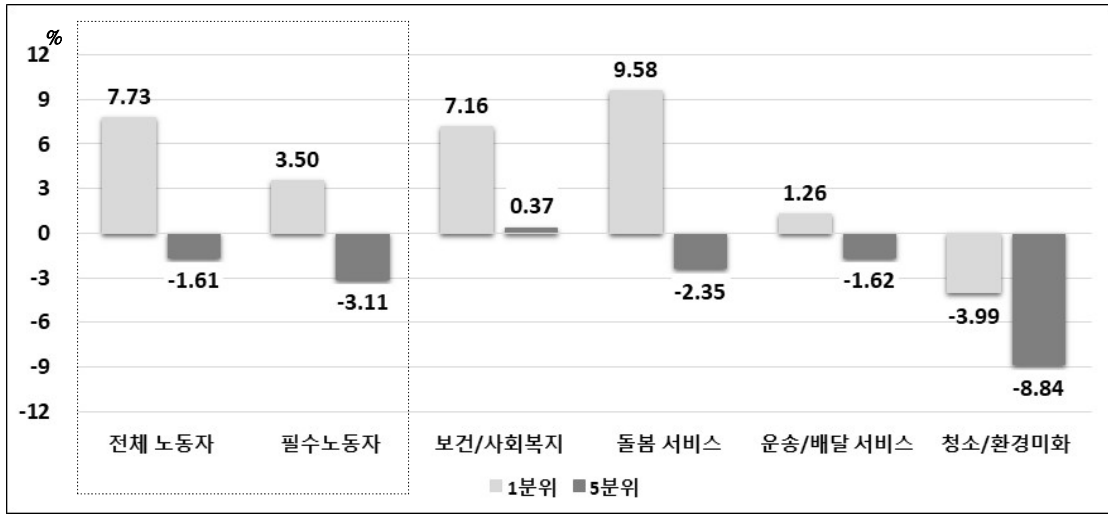
보건/사회복지 근로시간 증감율은 1분위 -2.1%, 2분위 -6.6%, 3분위 -8.6%, 4분위 -8.4%, 5분위 -8.3%로 3분위 감소율이 높았고, 최하위소득계층인 1분위의 감소율은 낮았다. 중위 대비 1분위 증감율은 7.2%, 5분위 증감율은 0.4%로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근로시간이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했다.

12) 중위(3분위)대비 증감율은 소득분위별 주당 근로시간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했다.

$$\frac{((2020\text{년 } 1\text{분위 근로시간 평균}) / (2020\text{년 } 3\text{분위 근로시간 평균}) - (2019\text{년 } 1\text{분위 근로시간 평균}) / (2019\text{년 } 3\text{분위 근로시간 평균}))}{(2019\text{년 } 1\text{분위 근로시간 평균}) / (2019\text{년 } 3\text{분위 근로시간 평균})} * 100$$

13) 필수노동자 근로시간은 본 연구에서 규정한 필수노동자 직업군(보건/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운송/배달 서비스, 청소/환경미화)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값을 적용했다.

[그림 10] 2020년 필수노동자 근로시간 증감율 (2019년 대비 %)



자료: 통계청, 2016-2020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표 3> 2020년 필수노동자 근로시간 증감율 (2019년 대비 %)

직업군	2019/2020 근로시간 증감율(%)					중위(3분위) 대비 증감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5분위
보건/사회복지	-2.1	-6.6	-8.6	-8.4	-8.3	7.2	0.4
돌봄 서비스	3.7	-6.0	-5.3	-6.0	-7.6	9.6	-2.3
운송/배달 서비스	-6.1	-8.9	-7.2	-7.4	-8.7	1.3	-1.6
청소/환경미화	-4.2	24.2	-0.2	-7.1	-9.0	-4.0	-8.8
평균	-2.1	0.7	-5.3	-7.2	-8.4	3.5	-3.1

자료: 통계청, 2016-2020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근로시간 증감율은 1분위 3.7%, 2분위 -6.0%, 3분위 -5.3%, 4분위 -6.0%, 5분위 -7.6%로 5분위 감소율이 높았고, 최하위소득 계층인 1분위는 증가했다. 중위 대비 1분위 증감율은 9.6%, 5분위 증감율은 -2.3%로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근로시간은 증가했으나, 고소득층의 근로시간은 줄었다. 돌봄 서비스 노동자는 필수노동자들 중 저소득층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 돌봄 서비스 노

동자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를 확인한 결과이다.

운송/배달 서비스 근로시간 증감율은 1분위 -6.1%, 2분위 -8.9%, 3분위 -7.2%, 4분위 -7.4%, 5분위 -8.7%로 2분위와 5분위의 감소율이 높았다. 중위 대비 1분위 증감율은 1.3%, 5분위 증감율은 -1.6%로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근로시간은 조금 증가했고, 고소득층의 근로시간은 줄었다.

청소/환경미화 근로시간 증감율은 1분위 -4.2%, 2분위 24.2%, 3분위 -0.2%, 4분위 -7.1%, 5분위 -9.0%로 2분위 증가율이 매우 높았고, 최상위소득계층인 5분위는 감소했다. 중위 대비 1분위 증감율은 -4.0%, 2분위 증감율은 24.4%, 5분위 증감율은 -8.8%로 코로나19 이후 2분위 근로시간 증가율이 매우 높았고, 1분위와 5분위의 근로시간은 줄었다.

V. 필수노동자 임금불평등 요인 분해

앞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20년 우리나라 필수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의 약 70%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필수노동자 모든 직군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임금증가율이 낮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면노동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필수노동자의 저평가된 임금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불평등한 임금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5장에서는 필수노동자의 임금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각 요인들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

〈표 4〉는 필수노동자 임금불평등 요인 분해 회귀방정식에 투입할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이다. 자료는 2020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였으며, 필수노동자 4개 직군(보건/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운송/배달서비스, 청소/환경미화)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표 4〉 기초통계량

변수명	필수노동자			
	보건/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운송/ 배달서비스	청소/ 환경미화
임금총액(원)	2,110,628 (686,052)	1,258,797 (610,445)	2,346,576 (912,169)	1,399,268 (740,930)
시간당임금(원)	13,717 (5,165)	10,609 (4,360)	13,703 (6,129)	10,749 (4,923)
연령(년)	39.91 (10.54)	56.28 (10.61)	48.88 (12.02)	61.65 (11.29)
연령자승	1704.26 (854.65)	3279.74 (1098.03)	2534.08 (1155.39)	3927.54 (1304.70)
성별(남성=1)	0.117 (0.322)	0.054 (0.226)	0.954 (0.210)	0.283 (0.451)
교육(년수)	14.42 (1.89)	11.96 (3.02)	12.42 (2.33)	9.05 (3.59)
결혼(=1)	0.612 (0.487)	0.689 (0.463)	0.627 (0.484)	0.616 (0.486)
근속년수(년)	4.10 (4.99)	2.80 (3.45)	5.88 (7.20)	3.15 (4.50)
상용직(=1)	0.935 (0.246)	0.473 (0.499)	0.687 (0.464)	0.431 (0.495)
주 근로시간	37.06 (8.02)	29.13 (13.14)	42.01 (12.44)	30.76 (12.48)
N	4,684	5,480	4,652	5,530

주: 1.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자료. 2. ()은 표준편차. 3. 가중치 계산.

임금불평등 요인 분해 회귀식에 투입할 종속변수는 임금총액이다. 임금총액은 2020년 기준 월 평균임금을 사용했다. 필수노동자 각 직군별 필수노동자 평균 임금총액은 보건/사회복지 2,110,628원, 돌봄 서비스 1,258,797원, 운송/배달서비스 2,346,576원, 청소/환경미화 1,399,268원이다.

설명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학력), 결혼유무, 근속년수, 상용직, 근로시간을 투입했다. 직군별 연령 평균은 보건/사회복지 40세, 돌봄 서비스 56세, 운송/배달 서비스 49세, 청소/환경미화 62세이며, 성별은 남성이 보건/사회복지

12%, 돌봄 서비스 5%, 운송/배달서비스 95%, 청소/환경미화 28%를 차지했다. 교육수준은 보건/사회복지 ‘대졸’, 돌봄 서비스와 운송/배달서비스는 ‘고졸’, 청소/환경미화는 ‘중졸’ 수준이다. 결혼유무는 필수노동자 4개 직군 모두 기혼자가 약 60%, 미혼자가 약 40%이며, 평균 근속년수는 보건/사회복지 4년, 돌봄 서비스 3년, 운송/배달서비스 6년, 청소/환경미화 3년 정도이다. 상용직 비율은 보건/사회복지 94%, 돌봄 서비스 47%, 운송/배달 서비스 69%, 청소/환경미화 43%이며, 1주 근로시간 평균은 보건/사회복지 37시간, 돌봄 서비스 29시간, 운송/배달 서비스 42시간, 청소/환경미화 31시간 정도이다.

2. 필수노동자 임금결정요인

필수노동자 임금불평등 샤플리값 요인 분해에 앞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로그 임금총액을 사용하였고, 설명변수는 연령, 연령자승, 성별, 교육수준, 결혼유무, 근속년수, 상용직, 근로시간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필수노동자 임금총액은 고령, 남성, 근속년수가 길수록, 고용형태(상용직), 근로시간이 길수록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수준(학력)과 결혼유무는 일부 필수노동자에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¹⁴⁾ 교육(학력)수준은 보건/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운송/배달 서비스 직군에서만 유의미한 값을 나타냈고, 결혼유무는 운송/배달서비스와 청소/환경미화 직군에서 유의미한 값을 나타냈다. 이는 각 필수노동자 특성에 따라 임금총액이 설명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14) 전통적인 인적자본이론에서 교육수준(학력)은 임금 및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Mincer, 1974)

〈표 5〉 필수노동자 임금결정요인 (종속변수: 로그 임금총액)

Variables	보건/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운송/ 배달서비스	청소/ 환경미화
연령	0.010*** (0.003)	0.040*** (0.003)	0.049*** (0.003)	0.045*** (0.003)
연령자승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0.000)
성별	0.158*** (0.012)	0.118*** (0.023)	0.283*** (0.026)	0.094*** (0.013)
교육수준	0.030*** (0.002)	0.008** (0.002)	0.003 (0.002)	0.017*** (0.002)
결혼	-0.008 (0.009)	0.004 (0.011)	0.135*** (0.012)	0.022* (0.012)
근속년수	0.017*** (0.001)	0.009*** (0.001)	0.012*** (0.001)	0.011*** (0.001)
상용직	0.310*** (0.015)	0.284*** (0.011)	0.256*** (0.013)	0.206*** (0.013)
근로시간	0.012*** (0.000)	0.026*** (0.000)	0.010*** (0.000)	0.032*** (0.001)
상수항	3.903*** (0.064)	2.857*** (0.079)	3.459*** (0.082)	2.631*** (0.092)
R-squared	0.355	0.595	0.416	0.687
Observations	4,684	5,480	4,652	5,530

주: 1.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자료 이용. 2. ()은 표준오차
3. *** p<0.01, ** p<0.05, * p<0.10

3. 필수노동자 임금격차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임금불평등 요인별 한계적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 기반의 ‘평균 샵플리값 분해’를 시행하였다(이우진·최은영, 2020).¹⁵⁾ 임금총액 임금불평등에 대한 샵플리값 분해 결과는 절대적 기여도(AC)와 상대적 기여도(RC)로 나타난다. 절대적 기여도는(AC)는 지니계수에 대한 요인별 절대적 기여도를 나타낸

15) 샵플리값 요인 분해방법은 모든 요인의 기여가 배제 순서에 의한 순위에 의존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설명변수의 증가는 결과를 산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7개 설명변수는 7! 순열을 통하여 한계적 기여와 한계 효과의 평균을 산출하는데 총 5,040회 계산을 수행하였다(잔차, 상수항 포함).

것이고, 상대적 기여도(RC)는 지니계수를 100으로 놓고 요인별 상대적 기여도를 계산한 것이다.

먼저, 2020년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불평등 결정요인을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 근속년수, 상용직, 근로시간으로 분해하여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임금총액 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은 근속년수(15.9%)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육(11.3%), 상용직(11.0%), 근로시간(9.3%), 성별(7.9%)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6>은 필수노동자 임금총액 불평등 샐플리값의 상대적 기여도 결과이다. 잔차(Residuals)는 임금함수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나타낸다.¹⁶⁾

<표 6> 필수노동자 임금총액 Shapley Value 분해

	보건/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운송/ 배달서비스		청소/ 환경미화	
	AC	RC	AC	RC	AC	RC	AC	RC
연령	0.001	0.003	0.010	0.020	0.022	0.056	0.055	0.104
성별	0.021	0.066	0.002	0.004	0.013	0.033	0.007	0.012
교육수준	0.019	0.059	0.009	0.019	0.003	0.008	0.029	0.054
결혼	0.000	0.001	0.004	0.007	0.021	0.053	0.006	0.012
근속년수	0.042	0.130	0.011	0.024	0.037	0.094	0.022	0.042
상용직	0.020	0.061	0.065	0.134	0.051	0.130	0.051	0.097
근로시간	0.031	0.095	0.219	0.451	0.043	0.110	0.225	0.425
Resid	0.189	0.584	0.165	0.341	0.200	0.515	0.135	0.255
Total	0.324	1.000	0.485	1.000	0.389	1.000	0.529	1.000
Obs	4,684		5,480		4,652		5,530	

주: 1.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자료 이용.

16) 지역별 고용조사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미시자료의 제약으로 노동자 특성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 규모, 정규직/비정규직, 경력, 노조가입 유무 등에 대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지 못했다.

필수노동자 임금총액 불평등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을 직군별로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는 근속(13.0%), 근로시간(9.5%), 성별(6.6%), 상용직(6.1%), 교육(5.9%), 돌봄 서비스는 근로시간(45.1%), 상용직(13.4%), 근속년수(2.4%), 연령(2.0%), 교육(1.9%), 운송/배달서비스는 상용직(13.0%), 근로시간(11.0%), 근속년수(9.4%), 연령(5.6%), 결혼(5.3%), 청소/환경미화는 근로시간(42.5%), 연령(10.4%), 상용직(9.7%), 교육(5.4%), 근속년수(4.2%)이다¹⁷⁾.

이와 같이 근속년수와 근로시간이 임금총액 불평등에 기여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상용직/임시일용직’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사회복지는 임금불평등 기여 요인에서 종사상 지위(‘상용직/임시일용직’)가 차지하는 부분이 6.1%로 나타났고, 돌봄 서비스는 13.4%로 나타났다. 운송/배달서비스도 임금불평등 기여 요인에서 종사상 지위(상용직/임시일용직)가 차지하는 부분이 13.0%로 가장 크다. 청소/환경미화는 9.7%이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 운송/배달서비스, 청소/환경미화 노동자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들의 임금불평등이 약 10% 이상 완화될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상승률(15.82%)에 비해 낮고, 필수노동자의 임금과 전체 노동자의 임금 간 격차는 19% 더 커졌다¹⁸⁾.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근로시

17) 필수노동자의 전반적인 저평가된 임금뿐만 아니라 필수노동자 직군별 임금불평등에 대해 분석한 것은 필수노동자별로 각기 다른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금 불평등 요인 분해에서 기여도가 높은 교육수준(학력)과 근속년수 요인들이 필수노동자의 임금불평등 요인에서는 그 값이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18) 코로나19 이후 전체 노동자와 보건/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17%, 돌봄 서비스 노

간은 약 7% 감소했으나, 필수노동자 청소/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은 약 6% 증가했다.

필수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석에서 보건/사회복지 임시/일용직은 코로나 19 이후 임금 격차가 커졌고, 돌봄 서비스는 2018년 이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가 커졌다. 그리고 청소/환경미화는 2019년 이후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은 13% 증가했고, 상용직은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었다. 그리고 소득분위별 분석에서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서도 임금이 감소했고, 근로시간은 저소득층에서 증가했고, 고소득층은 감소했다. 즉,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 필수노동자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필수노동자의 저평가된 임금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공익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요구된다. 첫째, 필수노동자 사회적 위험수당으로 저평가된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위험이 충족되면 더욱 고통 받을 수 있다. 둘째, 필수노동자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고용형태로 인한 임금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자료의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필수노동자 직군에서 ‘운송/배달서비스’ 노동자는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비임금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운송/배달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한계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샤플리값 임금불평등 분해방법에서 각 요인별 설명변수들에 대한 제약으로 잔차(Residuals)에 대한 비중이 높다. 이 부분도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필수노동자 임금불평등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사업체 규모, 정규직/비정규직, 경력, 노조가입 유무 등)들을 투입하지 못했다.

동자는 25%, 운송/배달 서비스 노동자는 29%, 청소/환경미화원은 11% 더 커졌다.

[참고문헌]

- 김혜진(2020)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0-13
- 이병희·정성미·김현경·이시균(2018) 노동시장제도와 임금불평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01
- 이우진·최은영(2020) 한국의 임금격차와 요인별 기여, 경제발전연구, 26(2), 87-126.
- 홍성훈(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미국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47-26.
- Mincer, J.,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부 록]

<표 1> 2019-2020년 필수노동자 시간당임금

	2019 시간당임금					2020 시간당임금					(시간당임금)19/20 증감율 (전년 동기 대비)					2019	2020	19/20	2019	2020	19/2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3분위	1분위 /3분위	1분위 증감율	5분위 /3분위	5분위 /3분위	5분위 증감율
보건/사회복지	9,499	10,440	11,259	12,363	16,764	11,054	12,276	14,599	20,921	15,102	16.36	17.59	29.67	69.23	-9.91	0.84	0.76	-10.26	1.49	1.03	-30.52
돌봄 서비스	7,892	9,172	9,673	10,119	11,889	8,441	9,897	10,952	11,355	12,705	6.96	7.90	13.22	12.22	6.86	0.82	0.77	-5.53	1.23	1.16	-5.62
운송/배달 서비스	8,522	10,054	11,919	14,362	18,407	9,067	11,240	13,038	15,780	20,918	6.39	11.80	9.39	9.87	13.64	0.72	0.70	-2.74	1.54	1.60	3.89
청소/환경미화	6,808	8,117	8,545	9,870	12,826	8,222	8,689	9,899	11,363	14,288	20.76	7.04	15.84	15.13	11.40	0.80	0.83	4.25	1.50	1.44	-3.84
필수노동자 평균	8,180	9,446	10,349	11,678	14,972	9,196	10,525	12,122	14,855	15,753	12.62	11.08	17.03	26.61	5.50	0.79	0.76	-3.57	1.44	1.31	-9.02
전체 노동자 평균	8,881	10,787	12,969	16,660	29,167	9,941	12,056	14,623	19,394	34,292	11.94	11.77	12.76	16.41	17.57	0.68	0.68	-0.73	2.25	2.35	4.27

<표 2> 2019-2020년 필수노동자 근로시간

	2019 근로시간					2020 근로시간					(근로시간)19/20 증감율 (전년 동기 대비)					2019	2020	19/20	2019	2020	19/2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3분위	1분위 /3분위	1분위 증감율	5분위 /3분위	5분위 /3분위	5분위 증감율
보건/사회복지	35.04	41.14	41.57	42.08	43.16	34.31	38.44	37.98	38.55	39.58	-2.08	-6.57	-8.62	-8.40	-8.28	0.84	0.90	7.16	1.04	1.04	0.37
돌봄 서비스	15.49	24.67	32.23	40.62	44.47	16.07	23.18	30.51	38.19	41.11	3.73	-6.05	-5.34	-5.98	-7.57	0.48	0.53	9.58	1.38	1.35	-2.35
운송/배달 서비스	35.76	47.00	48.33	48.46	48.30	33.60	42.81	44.84	44.89	44.09	-6.05	-8.92	-7.22	-7.38	-8.72	0.74	0.75	1.26	1.00	0.98	-1.62
청소/환경미화	10.04	17.44	33.76	40.15	43.49	9.62	21.66	33.70	37.29	39.58	-4.15	24.22	-0.17	-7.13	-9.00	0.30	0.29	-3.99	1.29	1.17	-8.84
필수노동자 평균	24.08	32.56	38.97	42.83	44.86	23.40	31.52	36.76	39.73	41.09	-2.14	0.67	-5.34	-7.22	-8.39	0.59	0.62	3.50	1.18	1.14	-3.11
전체 노동자 평균	27.50	42.60	43.96	44.02	43.19	27.06	39.10	40.15	40.09	38.80	-1.62	-8.22	-8.68	-8.91	-10.15	0.63	0.67	7.73	0.98	0.97	-1.61